

서론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김상배(서울대학교)

1. 소프트 파워의 시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Nye, 2008a). 부시(George W. Bush)의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은 국내적으로도 인기를 잃어서 2008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Barack Obama)의 민주당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흥미롭게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지닌 무기의 위력이나 부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우리의 이상, 즉 민주주의, 자유, 기회, 불굴의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암시한 바 있다(New York Times, Nov 5, 2008).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앞으로 보이게 될 구체적인 행보를 좀 더 지켜보아야 정확히 알겠지만, 적어도 부시 행정부가 8년 동안 추진했던 ‘테러와의 전쟁’과는 다른 기조의 세계 전략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08년 후반기에 밀어닥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까지 겹쳐서 지난 세월과 같이 ‘완력’이나 ‘실력’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먹이나 돈에 의존하는 강제와 제재의 국제정치를 넘어서 비물질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설득과 동의를 국제정치에 대한 탐구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은 종전의 협소한 권력 개념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21세기 권력 변환의 과정을 잡아낸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Nye, 2004). 나이에 의하면, 세계정치의 권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이 강제하고 밀어붙이는 권력인 하드 파워(hard power)로부터 문화·이념·외교 등을 바탕으로 설득과 동의를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는 소프트 파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비물질적인 변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 자원에서 우리나라의 권력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위를 환기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나

1)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본 권력 개념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국제정치학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작업들만 뽑아보면, Keohane and Nye(1977), Nye(1991; 2004), Larner and Walters eds.(2004), Barnett and Duvall eds.(2005), Beck(2005), Berenskoetter and Williams eds.(2007) 등을 들 수 있다. 권력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세계정치 전반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국내의 시도로는 하영선·김상배(2006)를 참조.

이가 그려내는 소프트 파워란 자신의 능력이나 보유한 자원으로 측정되는, 그래서 그 효과가 고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권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유동적인 권력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속된 말로 대박을 터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허술한 용어가 이처럼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드 파워로부터 소프트 파워로의 이동이라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도식을 사용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딱딱할(hard)’ 수밖에 없는 ‘권력(power)’이라는 용어에다가 ‘부드럽다(soft)’는 형용사를 결합시켜 ‘소프트 파워’라고 부른 다소 모순적인 조어(造語)의 참신함이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딱딱한 힘’이 아닌 ‘부드러운 힘’이라는 개념의 렌즈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변화가 소프트 파워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일 것이다. 여하튼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과학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도 소프트 파워는 연성권력(軟性權力), 연실력(軟實力), 매력(魅力) 등으로 번역되면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손열, 2007).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정책 개념의 성격이 강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분석적인 학술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나이의 개념은 ‘개념으로서의 권력’보다는 ‘은유로서의 권력’이라는 외양을 취하고 있어서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다. 미국의 실천적 문제의식을 마치 소프트 파워라는 은

유의 베일에 싸놓은 것 같아서, 비강대국이 그 베일을 걷어내고 제대로 모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프트 파워 개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인식론적 편향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잡아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권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보다 좀 더 정교한 분석 개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권력 이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제3의 권력 현상이 그 부상을 늦추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 책이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을 토론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는,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해야 할 권력 변화가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 파워만큼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이가 소프트 파워라고 부른 현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소프트 파워 현상은 이미 존재했지만, 국내정치 맥락의 권력 이론과 달리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최근 까지도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국제정치의 존재론적 특징이 소프트 파워보다는 하드 파워에 가까운 개념화와 좀 더 친화성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하튼 이전에도 소프트 파워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는 하드 파워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세계화와 정보 혁명,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물질·지적 조

2)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적 발전을 꾀한 작업들로는 평화포럼21(2005), 손열(2007), 김상배(2008), 김상배 외(2008) 등을 들 수 있다.

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급속히 도래했다. 새로운 개념 없이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권력 현실의 변환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그 개념을 옹호하든지 아니면 비판을 통해서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든지 간에, 21세기 권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지니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코헤인(Robert O. Koehane)을 비롯한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월츠(Kenneth N. Waltz)의 이론을 비판하는 책에 *Neorealism and its Critics*라는 제목을 붙였듯이, 이 책의 작업도 *Soft Power and its Critics*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Keohane ed., 1986). 그러나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독자적인 권력론을 개발하는 시론(試論)을 펼치는 데 있다. 태생적으로 국제정치학의 개념으로 제시된 나이의 소프트 파워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사회학과 정치학, 그리고 정치 사회사상의 학제 간 연구 형식을 취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책의 학제 간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으로 배울 수 있는 권력 이론의 실마리는 무엇인가? 둘째,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내재적·외양적으로 지닌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비판적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21세기 권력론의 내용과 연구방향은 무엇인가?

이 책의 서론을 겸하는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절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국제정치적 배경과 소프트 파워 개념의 내용 및 개념적 특징,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나라별 현황과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소프트 파워 개념이 지닌 실천적·이론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나이의 개념화가 지닌 강대국의 정책 개념적 편향

과 실증주의적 인식론 및 행위자 기반의 이론화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4절에서는 21세기 권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문제를 문화 담론과 정체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책에서 21세기 권력론의 하나로 제시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의 개념화를 모색했다. 5절에서는 이 책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했다.

2.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을 국제정치적 배경으로 하여 처음 등장했다. 나이는 1991년에 출간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라는 책에서 당시 국제정치학계의 화두였던 미국의 패권 쇠퇴론에 대한 반론을 피력했다(Nye, 1991). 나이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지표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의 잣대로 보면 여전히 세계를 주도해 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2004년에 이르러 나이는 그동안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킨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라는 단행본을 낸다(Nye, 2004). 그런데 2004년의 책이 대상으로 삼은 2000년대 초반 국제 정치의 현실은 1980년대 후반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하드 파워를 지닌 유일 강대국임은 분명했지만, 세계 전략을 원활히 수행할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는지는 의심받는 상황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개입 논리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21세기를 맞이해 권력의 속성이 크게 바뀌고 있음에도 부시 행정부 지도자들은 권력 현실의 변화에 매우 둔감하다는 것이다. 나이는 미국이 단극화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겉보기와는 달리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세계정치는 수평적 게임뿐만 아니라 수직적 게임도 함께 펼쳐야 하는 3차원 체스게임에 비유된다. 맨 위의 체스판에서는 단극적인 군사력 게임이 벌어지고, 중간 체스판에서는 다극적인 경제력 게임이 벌어진다. 맨 아래의 체스판에서는 테러, 국제범죄, 기후 변화, 전염병 확산 등의 초국가적 이슈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단극이나 다극을 넘어 매우 광범위한 권력 분산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복합적인 게임의 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국제사회의 성숙과 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세계정치의 체스판은 3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부터 문화·이념·외교 등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나이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Nye, 2004: 4).

나이가 그려내는, 하드 파워로부터 소프트 파워로의 권력 이동은 행위의 스펙트럼을 따라서 명령으로부터 동조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i) 강제, ii) 회유, iii) 의제 설정, iv) 매력 등의 네 단계를 거친다. 또한 이들 네 단계는 각각의 행위에 친화적인 자원을 활용하는데, 이들은 i) 무력과 제재, ii) 보상과 매수, iii) 제도, iv) 가치와 문화 및 정책 등이 다(Nye, 2004: 8). 이러한 나이의 권력에 대한 도식을 보면, 하드 파워와 소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달(Robert Dahl) 식의 행태주의적 권력관과 국제정치학의 주류 진영이 채택한 자원 중심의 도구적 권력관이 적절히 조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권력이란 ‘특정한 자원의 보유를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으로서 그려진다.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권력관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 권력이 생성되고 작동하는 ‘비물질적 측면’과 ‘관계적 맥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둔다는 점은 나이의 권력 개념이 지니는 큰 특징이다.

나이의 개념적 도식에서 소프트 파워란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는 한 나라의 문화나 민주주의·인권·개인적 기회의 보장 등과 같이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제반정책 등에서 우리나라에 매력과 관련된다. 소프트 파워란 특정한 나라의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본을 따르고자 하며, 또한 번영과 개방성의 수준을 동경케 함으로써 그 나라를 뒤따르게 하는 권력이다. 소프트 파워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이고,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는 권력이다. 또한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정당한 행사나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추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제 측면을 문화·정치적 가치·외교의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소프트 파워는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종류의 힘이다. 특히 국제적 맥락에서 자국이 지닌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더욱 어

3) 권력 이론 일반과 국제정치학의 권력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 것으로는 Isaac(1987)과 Barnett and Duvall eds.(2005)를 참조.

럽다. 소프트 파워의 성공이 낳을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소프트 파워가 성공할 경우 오히려 저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인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반미 시위를 벌일 수 있다. 아무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할리우드 영화를 즐긴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의 역풍은 하드 파워의 경우보다는 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부터 약자를 끌어들이 여지가 있는 권력이 바로 소프트 파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 파워는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 즉 신뢰를 얻어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나이도 소프트 파워의 행사 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의 호감을 더 많이 사고 또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나라는 이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많은 국가들이다”라고 강조했다(Nye, 2004: 31).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Nye, 2004: 33~34). 나이는 소프트 파워의 지표로 이민자, 외국인 학자, 도서 출판, 음악, 웹 사이트, 노벨상 수상자, SCI(Science Citation Index), 삶의 질 지수, 국민 1인당 특허 건수, GN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과학 기술의 발전, 음악, 영화, TV, 민주주의의 원칙, 기업경영 방식, 미국적 이념과 관념 등에 대한 호감도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나이가 평가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마찬가지로 세계 제일이다. 교육 체제의 수준이나 유학생 유입량, 할리우드와 맥도널드 햄버거 및 프로 스포츠, 그리고 MTV와 CNN 등으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의 풍부함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문화 분야의 사례이다. 정치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하여 나이가 지적하는 미

국의 소프트 파워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 및 실천, 개인주의와 자유, 페미니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책·외교와 관련된 미국의 소프트 파워로는 바람직한 국내정책, 외교정책의 내용과 스타일, 국제적 공공재의 제공 등을 들고 있다(Nye, 2004: 34~72).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나이가 특별히 주목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알려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경제 모델이다. 그야말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 모델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로서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Nye, 2005).

나이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사용한 지표와 방법론은 그 이후 세계 각국의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작업들에 원용되는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다. 나이 자신도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구소련, 캐나다, 유럽(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베네룩스 3국), 아시아(일본, 중국, 인도, 한국, 타이) 등의 소프트 파워를 언급했다(Nye, 2004: 73~89).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국가 행위자에 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비국가 행위자의 ‘대항적 소프트 파워(counter soft power)’도 다루고 있다. 아마도 최근 부상하는 미국에 대한 대항 담론에 대한 관심의 일환일 것이다. 이들 비국가 행위자들의 대항적 소프트 파워를 논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특별히 주목하는 변수는 정보화의 영향이다. 하드 파워가 별로 없는 이들 비국가 행위자들 대부분이 소프트 파워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 확산으로 말미암은 통신비용 감소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아 제한·임신중절 반대, 전도 활동 등을 벌이는 종교조직의 소프트 파워나 유엔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소프트 파워도 논

하고 있다(Nye, 2004: 90~98).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나이의 궁극적인 관심은 외교정책의 역할로 귀결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소프트 파워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지만,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문화나 가치, 이념의 실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외교정책상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이의 인식 속에서 냉전기까지 미국의 소프트 파워 구축은 상대적으로 성공한 작품이었다. 소프트 파워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의 붕괴를 유도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공공 외교에 대한 노력을 경시했다(Nye, 2004: 99~125). 나이에 따르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단순한 선전을 넘어서는 공공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인데,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소프트 파워의 외교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최근 중동과 중앙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가 안고 있는 난제를 반영하는 사례임이 분명하다. 21세기의 첫 계단에서 세계적으로 이는 반미주의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경시한 결과라는 것이다(Nye, 2004: 117~147; 2008a).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에서 유의할 것은 소프트 파워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드 파워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양자의 관계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묘사했다(Nye, 2004: 147). 특히 나이는 2004년 단행본의 출간 이후 하드 파워를 바탕으로

4) 나이의 스마트 파워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로는 김상배(2009)를 참조.

하지 않은 소프트 파워는 없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응하여 스마트 파워라는 용어를 좀 더 빈번히 사용하는 듯하다(Nye, 2008a). 스마트 파워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잘 조합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권력이다. 일정한 하드 파워의 자원을 보유한 상황에서 소프트 파워가 성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이는 다시 하드 파워를 행사하는 데 유리한 소프트 파워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양자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활용한다는 스마트 파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신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나이의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은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의 개념과는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제3의 권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양자를 엮어내는 권력, 이를테면 ‘권력에 대한 권력(power about power)’, 즉 ‘메타 권력(meta-power)’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 선상에서 나이는 최근의 작업을 통해, 스마트 파워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해법을 리더십(leadership) 개념에서 찾고 있다. 나이에 따르면, 변환의 시대 상황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하드 파워 자원을 바탕으로 한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과 소프트 파워 자원을 바탕으로 한 ‘영감적(inspirational) 리더십’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성공적인 리더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결합되어, 성공적인 스마트 파워의 전략으로 승화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이는 이러한 능력을 ‘상황지성’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내고 있다. 나아가 말하는 상황지성이란 i)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ii) 대세에 편승하여 행운을 창출하는 능력, iii) 전반적인 맥락과 추종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을 적응시키는 능력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상황지성이 발휘되려면 문화적 맥락의 차이, 권력자원의 분포, 추종자들의 필

요와 요구, 시간적 시급성, 정보의 흐름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리더십의 핵심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추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목표를 달성해내는 ‘상호작용의 기예(interactive art)’ 또는 ‘지혜의 영역’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Nye, 2008b).

3. 소프트 파워의 비판적 이해

소프트 파워 개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변환의 과정에 들어선 권력을 ‘부드러운 힘’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라는 은유의 활용은 자칫 의식적으로 이론적이며 합리적인 권력 논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 자체가 각종 권력 논의의 형체를 흐려서 묻어버리는 신비화의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정운(2005: 30)의 지적처럼,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논의하면서 굳이 그와 비슷하지도 않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권력 개념과 같은 범주에 있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그 이론적 의미를 축소하여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을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이는 자신이 발견한 – 소프트 파워라고 부른 – 권력 개념의 폭발력을 통제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은유의 포장지를 덮어씌우는 미술적 발상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지속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이 학술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 슬로건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 파워가 현대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개

말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강대국 중심의 세계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패권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실천적 문제의식의 연속 선상에서 등장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세계정치의 일반적 작동원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패권 쇠퇴론에 대한 지적 반격이라는 현실적 관심을 바탕으로 전개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원래 하드 파워의 측면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계정치에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의 조리법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을 연상케 한다. 본바탕 자연 미인의 태생이나 구조적인 성형수술의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 없이 피상적인 화장술의 기교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다고나 할까?

소프트 파워의 개념이 제국적 지식 생산의 전술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에 대한 논의에 이르러서 더욱 뚜렷해진다. 나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조합 공식으로서 스마트 파워를 강조하면서도 하드 파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사실 일정한 물질 기반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 매력력을 느끼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개발도상국이 매력적인 문화와 가치를 꽃피운 사례도 흔치 않다.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기초가 갖추어질 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의 게임은 강대국의 게임이다. 하드 파워의 열세

를 소프트 파워의 신장으로 만회해보려는 희망은 하드 파워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약소국이 소프트 파워 담론에 과도하게 매혹되어 하드 파워의 육성을 뒤로 미룰 경우, 제한된 권력자원이 왜곡되게 배분되어 국력 일반의 훼손을 경험할 수도 있다. 나이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스마트 파워의 개념도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그 공식에 맞추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조합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손열, 2006).

이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권력론의 역사에서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지니는 의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장 “근대 서양정치사상과 소프트 파워: 베버와 그람시”에서 신진욱이 역설하고 있듯이, 근대 서양정치사상과 현대사회과학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는 항상 강제와 동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루었다. 이에 비해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권력의 하드 파워에 주목하고 소프트 파워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묻혀 있던 문화, 이념, 신뢰 등과 같은 감성적이고 비물질적인 변수를 발굴함으로써 권력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담론적 파괴력을 발휘했다. 또한 소프트 파워 개념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리나라의 권력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소프트 파워가 문화적 감성과 이념이나 신뢰 같은 비물질적 변수를 매개로 하여 작동하는 권력이라면, 이는 당연히 ‘관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정이나 신뢰 등과 같은 현상은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며, 마찬가지로 국가 간 관계에서 소프트

트 파워의 성공도 대상이 어느 나라인가에 크게 구애받기 때문이다. 여하튼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21세기적 맥락에서 파악된 권력의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간결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적 장점은 동시에 약점으로 통한다.

먼저,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서의 문화·이념·외교 변수에 대한 강조와 관련하여, 나이의 논의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생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 매우 피상적이다. 특히 비물질적 변수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얼버무려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변수들이 생성되는 물질·지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의 소프트 파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할 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은 핵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중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자체와 이를 생산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를 누가 생산해 장악하고 있느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김상배, 2008). 종전의 산업기술과는 달리 IT라는 기술이 코드나 프로토콜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형태로 생성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방송통신 기기, 특히 인공위성이나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램화 또는 코드화되어 있다면 소프트 파워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소프트 파워 게임이 발생하기도 전에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 뻔하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이러한 종류의 기술과 지식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성되어 권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베일 속에 감추고 있다.

또한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문화나 이념 등의 비물질적 변수에 대해서 도구론적이고 전략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나이는 군사·경

제 자원에 빚대어 문화 자원이 국력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이런 도구적 또는 자원론적 시각으로 잡히지 않는 문화의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나라 특유의 문화적 자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나라의 제도와 체제 전체의 모습이나 더 나아가 당시 국제사회 전체에 확립된 보편적 가치나 문화질서와 연관된 경우일 수도 있다. 사실 이러한 존재론적 측면의 문화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소프트 파워의 영역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제7장 “중화질서와 덕치: 『한공추』에 담긴 권력론”에서 김영민이 강조하고 있듯이,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기초인 덕(德)의 정치에는 전략적 사고를 경계하고 진정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전면에 내세웠을 때 과연 소프트 파워가 그 매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프트 파워를 전략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힘의 행사는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기보다는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⁵⁾

나이의 개념은 소프트 파워의 효과성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에 비해서, 그러한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정당한 권력이나의 문제, 즉 소프트 파워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물론 소프트 파워의 정당성을 피상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주류 국제정치학이 상정하고 있는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점이 다소 있다. 게다가 소프트 파워를 도구적으로 개념화하다 보니 권력 자체의 효과성에만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진정으로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수용되고 납득할 수 있는

5)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권력에 대한 논의로서 유용한 연구로는 Jullien(2004)을 참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지배’에 대한 관심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제1장에서 신진욱이 역설하고 있듯이, 서양정치 사상의 전통에서 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오랜 고민거리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프트 파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오히려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일 수도 있다. 최근 유럽의 ‘규범권력(normative power)’에 대한 벡(Ulrich Beck)의 논의와 연관되는 지점이다(Beck, 2005).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전통질서에서 논하는 덕(德)의 개념도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규범권력에 대한 요소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소프트 파워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나이의 침묵은 미국이 딛고 서 있는 제도의 정당성을 시비 걸고 싶지 않은 미국 학자로서의 속내를 감추는 문제로 연결되는 듯하다.

한편 소프트 파워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나이의 개념화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기존의 국제정치 권력개념과 달리 권력의 관계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위자 기반의 개념화’라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프트 파워 개념은 행위자 간의 밀고(push) 당기는(attract) 작용과 반작용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뉴턴 물리학의 전제에 근거해 있는 기존의 권력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존의 권력 개념과 다른 것이 있다면, 원하는 바를 얻고자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쓴다는 것, 즉 간접적인 설득과 동의의 메커니즘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이의 설명만으로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는 설득의 메커니즘을 행태주의적 차원에서 너무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행태적 차원에서만 소프트 파워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행

위자 간에 끌고 미는 관계 자체를 넘어서 발생하는 권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소프트 파워 개념은 행위자 차원을 넘어 구조 차원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소프트 파워 개념은 설득되고 매혹되어 자발적으로 따르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설명할 수 있지만,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인간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도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는 것이 선택의 사항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으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말고는 다른 먹을거리가 없어서 먹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계를 탑재한 컴퓨터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윈도용으로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을 쓰려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하려면 구글(Google)이나 야후(Yahoo) 같은 포털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듯 세계정치의 현실을 보면, 하드 파워로 밀어붙이고 강제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구조적 차원에서 제약을 부과하는 권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소위 표준을 설정하는 권력으로 개념화되는 이러한 권력의 구조적 메커니즘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잡아내지 못하는 21세기 권력의 ‘소프트’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⁶⁾

6) 이렇게 세계정치의 구조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에 의해서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Strange, 1994; 김상배, 2004; 2007).

또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는 행위자의 명시적(또는 암묵적)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작위(作爲) 차원’으로 환원되는 권력에 대한 논의라는 특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의도성을 넘어서는 권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서, 행위자들이 전략적 구도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 자체를 아예 초월해 작용하는 권력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행위자를 넘어서는 탈구조적(post-structural) 차원이나 행위자의 의지를 초월하는 ‘초(超) 행위자’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정치의 권력 게임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권력(taken-for-granted power)’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권력은 세계정치를 관통해서 흐르는 체제의 수준에서 거론될 문제이지 특정한 국가 또는 행위자의 물리적 능력의 수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처럼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도구적 시각과 행위자 차원에서만 이해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하드 파워의 자원이 없는 비강대국이 소프트 파워로 강대국에 저항할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이가 관심을 두는 소프트 파워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제도와 규범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하드 파워만으로는 모두 채울

7) 최근 세계정치의 권력 논쟁을 담고 있는 Berenskoetter and Williams, eds.(2007)에 실린 Lukes(2007), Lebow(2007), Mattern(2007), Hassdorf(2007) 등의 논문은 각각 푸코(Michel Foucault), 고대 그리스 철학자,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 브루디외(Pierre Bourdieu) 등의 권력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치고 있다.

수 없는 틈새를 메우는 자원이자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질서 운영을 위한 ‘절차적 과정’에서 제기되는 권력일 뿐이지 세계정치의 ‘결과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중소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의 소프트 파워를 논하지만, 정작 이들에 의한 새로운 제도나 규범의 창출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게 다루어지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는 세계정치의 권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나이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 개념보다는 좀 더 정교한 분석 개념이 필요하다.

4. 21세기 권력론의 모색

이 책의 목적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독자적인 권력론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다. 그렇다면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부터 배울 수 있는 21세기 권력론의 실마리는 무엇인가? 이 글은 앞서 권력에 대한 논의에서 축으로 삼았던 권력자원과 권력 작동방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본 권력 변환에 주목해서 향후 21세기 권력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21세기 권력의 자원과 원천

권력 변환의 첫 번째의 차원은 ‘권력자원의 변환’이라는 축이다. 이 변환은 21세기 권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소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했듯이, 21세기적인 맥락에서 이해된 권력은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요소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이를 볼 때, 최근 권력에 대한 연구가 문화라는 변수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권력은 ‘다르지만 배우고 싶은 모습’을 창출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 나이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문화권력은 대중문화처럼 어느 나라의 특수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호감을 주고 매력을 발신하는 보편적 요소를 담아내는 힘이다. 사실 이러한 문화권력에 대한 논의는 나이가 이미 그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서 충분히 펼치고 있다. 할리우드와 디즈니로 대변되는 미국 대중문화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한 제2장 “소프트 파워와 정책 담론: 경합하는 일본의 정체성”에서 손열이 논하고 있듯이, 일본 대중문화에서 만화, 잡지, 대중음악, 패션, 디자인, 음식 등을 통해서 반영되는 이른바 ‘쿨 재팬(Cool Japan)’과 ‘라이프스타일 리더(lifestyle leader), 일본’에 대한 논의도 비슷한 사례이다. 한류(韓流)로 대변되는 최근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성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21세기 권력론은 특수성으로서의 문화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념이 지니는 권력적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매력 있는 나라라도 보편적으로 타당한 명분이 없다면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화 등과 같은 이념적 변수가 비물질적 권력 영역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특정한 정치·경제적 가치를 매력 자원 또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 이를 확산하여 국제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 미국 외교정책이 보편적 가치

로서의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을 확산시키려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제2장에서 손열이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의 일본 외교도 소위 ‘가치외교’라는 명목하에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적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대외적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사실 특정한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한 이들 이념과 가치들이 대내외적으로 보편성을 주장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21세기 권력론의 연구 주제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이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상의 논의가 간과한 문화 권력의 측면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와 가치가 지니는 권력자원으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는 소프트 파워 논의의 특징은 문화가 권력관계에서 배척, 즉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흡인, 즉 끌어당기는 방식에 주목한다는 데 있다. 한 국가가 지닌 문화적 저력이나 가치의 우월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따르고 좋아하게끔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와 이념과 관련된 권력정치 과정이 항상 매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포섭의 논리’만을 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화는 냉혹하기 이를 데 없는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문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문화의 담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최정운, 2007). 문화가 무엇이고, 특히 우월한 문화가 누구의 문화이냐를 논하는 과정에는 서로 다른 계급 간에 혹은 문화 생산에서의 주류와 비주류 간에, 자신이 누리는 문화의 스타일을 상대방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배척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제3장 “소프트 파워와 문화자본, 그리고 정체성”에서 한준이 다루고 있듯이, 소위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개념화되는 고급문화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개념

인 문화자본은 문화적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을 의미한다(부르디외, 2005). 문화자본의 많고 적음은 경제적인 의미의 계급적 위상을 표현하는데, 부르디외는 이러한 문화적 취향과 계급적 위상의 대응을 ‘상동(相同, homology)’이라고 정의했다. 게다가 문화자본은 사회적으로 ‘구별짓기(distinction)’를 행사하는 권력자원이 된다. 여기서 ‘구별짓기’란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서로 상징적 경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며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특히 문화자본에 대한 담론은 구체적 상징의 생산을 통해 특정 계급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 권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의미에서 생성된 ‘명품(名品)’의 이미지가 발휘하는 문화적 위력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이러한 ‘명품’을 소비하고자 또는 여타 고급문화를 즐기고자 단순한 안목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교한 지식체계가 있어야 한다면,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선택과 배제를 하는 권력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자본의 권력에 대한 논의는 여태까지 주로 국내차원에서 출현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적용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자본의 생산과 소비는 부르디외가 그린 ‘상동관계’를 기반으로 한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 한준이 소개하는 ‘옴니보어(omnivore)’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옴니보어는 세계화의 문화적 효과 중 다양성의 증가에 무게를 둔다. 옴니보어 논의에 따르면, 특정한 문화 예술의 내용이나 스타일은, 상동관계가 그려내는 것처럼 계급적 지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선호와 취향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Peterson and Kern, 1996). 예를 들어 음악 장르에 대한

취향은 상류층일수록 다양한 문화적 내용을 선호하고 폭넓게 즐기는 반면, 하류층으로 갈수록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중적 취향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서민들과 설렁탕 한 그릇을 함께 즐길 줄 아는 대통령 후보가 훨씬 더 문화적 소양이 풍부하다고 인식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대학 축전 기간에 학생들이 개최한 댄스파티에서 신세대의 춤을 선보이는 대학 총장의 문화적 포용성이 돋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화자본의 옴니보어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현대사회의 일반적 경향은 사회 내의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이질성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발견된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옴니보어 주장은 문화적 가치면에서 절대적 권위의 지배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반영한다. 문화자본의 상동관계 논의가 문화 장르 및 스타일의 위계적 우열을 가정하고 있었다면, 옴니보어 논의에서는 그 위계적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대등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소프트 파워이고 또 다른 구별짓기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 타자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능력,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옴니보어 논리의 다문화자본은 낯선 문화와 가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함으로써 상호간에 매력과 끌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강조컨대, 여기서 중요한 권력적 함의를 갖는 것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나의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원으로서의 문화권력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으로서의 문화권력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사실 정체성은 21세기 권력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매력에 대한 평가는 타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과 타자가 인식하는 정체성이 일치할 때 소프트 파워는 발휘될 수 있다. 제2장에서 손열이 지적하고 있듯이, 자기의 가치와 이념 혹은 이미지가 어떻게 하면 타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정체성과 관련된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기가 가진 복수의 가치와 이념 또는 문화 중에서 어느 것을 부각시켜 정체성을 구성해야 주어진 상황적 맥락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권력을 발휘하는 길일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도구적 또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권력에 접근하는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체성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자의 시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구성한 현실 즉,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실을 진실로 삼아 발신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기가 보기에 매력적인 것이 남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제2장에서 손열이 다룬 일본의 사례는 정책 담론에 담긴 자기 정체성의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기 정체성의 구성 문제가 21세기 세계정치와 만나는 접점은 최근 종교라는 변수가 부활하는 지점에서 발견된다. 종교는 세계관을 제공하고 개인 정체성의 근원이 되며,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공식적 제도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행위 동기는 다양한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만약에 초월적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요소를 기반으로 둘 경우 좀 더 확고한 동기로 무장된다. 제6장 “종교의 부활”과 근대 국제

질서의 변환”에서 존재성이 논하고 있듯이, 테러리즘의 배경으로 주목받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발흥이나 미국에서의 기독교 근본주의 강화 등의 사례는 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현상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를 매개로 정체성을 응집하는 것은 도구적·전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권력자원이다. 예를 들어, 테러 집단의 지도자들은 종교적 요소를 이용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대항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항 세력을 규합한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정체성 자체가 권력이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봉은 오히려 매력을 상실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는 도구적·전략적 차원을 넘어서 이해해야 한다.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존재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의 도구적·전략적 활용은 공동체의 존재 기반을 허물고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모순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 파워를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국가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가 단위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단위의 경직된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유연한 정체성을 내보이는 것이 좀 더 매력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근대적 의미의 통합된 단일 국가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이고 개방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매력을 얻는 길이다(Castells, 2004).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도구적·전략적 정체성 논의를 넘어 유럽의 정체성 문제가 21세기 권력론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최근 유럽 통합의 사례는 제4장 “소프트 파워와 정체성의 정치: 유럽의 사례”에서 홍태영이 논하고 있듯이, 도구적 차원에서 본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결과로서의 복합 정체성’이 발신하는 힘을 엿보게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지구화에서 비롯된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정체성 변환과 탈근대사회의 등장에 따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대적 개인 정체성의 다원화가 관찰된다. 또한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인종주의와 소수민족주의, 그리고 이민자들이 창출하는 이슬람의 정체성 등도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 유럽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정치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정체성을 보유한 단위체가 대내외적으로 발신하는 매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는 자원으로서 문화를 수출하여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근대 문화국가 차원의 발상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또한 단일성과 폐쇄성, 그리고 고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배적 정체성을 넘어서 개방성과 유동성, 그리고 비결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적 정체성의 부상을 의미한다(Castells, 2004). 이러한 정체성의 권력에 대한 논의는 자원으로서 권력이 아니라 흐름으로서 권력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명할 권력의 작동방식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2) 21세기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

권력 변환의 두 번째 차원은 ‘권력작동 방식의 변환’이다. 이러한 변환은 21세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했듯이, 21세기 권력은 행위자들의 속성이나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원이 아니라 점점 더 이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

에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이 작동하는 관계적 맥락에 대한 강조는 21세기 권력 논의에서 비물질적 권력자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맥을 같이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정체성의 권력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권력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권력의 관계적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려면 나아가 펼쳐는 양자(兩者)적·평면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양자적 관계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체의 입체적 맥락에서 권력 메커니즘을 보려는 발상이 필요하다. 이 책이 주목한 것은 행위자와 과정, 그리고 체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이다(Grewal, 2008; 김상배, 2008).

첫째,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권력 메커니즘을 보면, 행위자 차원에서 세(勢)를 모으는, 즉 네트워크를 만드는 권력 과정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은 네트워크를 여러 노드(node)들로 구성된 일종의 행위자로 보고, 그 네트워크가 더 많은 노드를 끌어모으는 소위 네트워크(networker) 또는 소집자(召集者, convener) 역할을 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사실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비록 초보적이지만 이렇게 네트워크가 세를 모으는 권력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나이의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드를 많이 끌어모으는 네트워크 행위자는 폭력이나 돈과 같은 전통적인 자원도 보유하고 있겠지만,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파악되는 내재적 매력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통해서 나이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도, 하드 파워처럼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보다는, 소프트 파워

처럼 비물질적 자원에 의지하여 ‘끌어당기는 매력’이 노드들을 불러 모아서 네트워크의 세를 불리는 데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었다(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8).

이렇게 세를 불러 발휘되는 네트워크의 권력은 제3장에서 한준이 소개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적 핵심은 타인이나 집단, 조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관계의 특성에 있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신뢰는 협력을 부추겨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 연결망이 형성될 때 개인과 집단 간의 협력은 더욱 원활해지고 사회관계는 더욱 결속된다. 더 나아가 내용적 측면에서 그 사회관계가 서로 동일하거나 가치와 규범,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 결속의 힘은 더욱 커진다. 즉, 사람들 간의 관계가 조밀해지고 빈틈없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규범이나 규칙까지도 형성된다면, 그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한 집합 행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와 앞서 언급한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는 서로 접점을 찾게 된다.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의 내용을 채우는 질료와 같다면 사회자본은 문화자본의 통로이자 그것이 반영된 프리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의 논의가 놓친 네트워크 권력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낳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의 동학이다. 이는 노드의 숫자, 즉 네트워크의 규모 자체라는 외재적 요인이 노드들을 유인하여 힘을 늘리고 이것이 소위 지배표준(dominant standards)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의 영역이다. 쉽게 말해 이는 ‘숫자의 힘’이 ‘표준의 힘’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경제학에서 ‘네트워크 외부성

(network externalities)’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네트워크 규모가 낡는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어 새로운 진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배제하고 대안 표준(alternative standards)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구조적 현상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게임의 이면에는 주어진 표준을 선택하지 않을 때 폭력이나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실력 행사의 메커니즘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권력 메커니즘을 볼 경우 얻는 또 하나의 소득은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 행사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다. 여기서 ‘관계적 맥락’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나이의 용례와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기존의 국제정치 권력에 대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관계적 맥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런데 나이가 말하는 관계적 맥락이란 행태주의적 차원에서 이해된 상호작용의 관계이거나 혹은 단위 차원의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즉, 나이는 권력 논의에서 어떠한 환경을 배경으로 누가 누구에게 권력을 행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책에서 제기하는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논의는 행위자 간 상호관계의 아키텍처와 그 속에서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관계적(또는 구조적) 위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 ‘관계’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된 네트워크상 권력은 무조건 노드의 덩치가 크거나 네트워크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네트워크상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느 특정 노드가 차지하는 위치나 기능 또는 링크의 형태와 숫자, 통칭하여 네트워크의 구도로부터도 권력은 비롯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트워크상에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요충지를 차지하고 ‘통(通)’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권력이다. 이는 일종의 스위치(switcher) 또는 조정자(coordinator)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은, 제5장 “정치권력의 사회학적 분해: 자원권력과 네트워크 권력”에서 장덕진이 논하고 있듯이, 네트워크의 특정한 위상을 차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상적 권력(positional 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이해된 위상적 권력은 전통적인 권력 메커니즘과 중첩되어 작동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상의 노드가 원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스위처로서 권력이 배가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 체제에서는 권력자원을 많이 보유한 강대국이 권력자원이 빈약한 약소국에 비해 스위처의 구실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처의 권력을 물질적 자원의 보유 여부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보와 지식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이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성되는 평판과 신뢰가 네트워크 시대의 스위처 권력을 행사하는 데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위처의 위상을 차지한 노드가 부당하게 자원을 추구하는 순간 공정한 스위처로서의 평판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한편 스위처의 권력은 네트워크 전체의 작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호환성과 상호작용성의 제공이라는 독특한 조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노드만이 그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배타성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끝으로, 행위자나 과정의 차원에서 이해된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구조나 체제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가장 소홀히 취급하는 있는 21세기 권력의 측면이기도 하다. 구조나 체제에서 이해된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상의 권력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네트워크의 형세(形勢, configuration) 자체를 짜는 프로그래머(programmer) 또는 설계자(designer)의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치 컴퓨터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 코드를 심어 넣듯이 네트워크 자체가 실행되기 전에 미리 특정한 프로그램을 내재화시키는 행위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나 검색 엔진의 로봇 등에 이러한 종류의 코드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기술 코드와 프로그램은 개인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통해 감시권력(surveillance power) 또는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을 행사하기도 한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이렇게 기술과 정보의 프로그램을 장악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물에 대한 지식’의 통제를 통해서 통치술(統治術, governmentality)을 행사하는 것이다(Faubion ed., 2000; Foucault, 2007).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권력은 명시적 제도와 암묵적 규범을 프로그래밍하는 권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와 규범에 설득력 있는 이념과 존재론적 보편성을 담아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 세계정치·경제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 이념이 발휘하는 제도와 규범의 권력을 목도한 바 있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작동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기원을 두는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보편적 정치경제 이념으로서의 매력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국내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세계질서가 디자인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한 경제개혁의 방향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개념화된 미국발 정치경제 이념은 이를 잉태한 미국이라는 체제의 존재론적 저력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2008년 후반에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개념화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 모델이나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키고 있다.

한편 근대 국제질서 내의 제도와 규범을 짜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는 프로그래머의 권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6장 “종교의 부활’과 근대 국제질서의 변환”에서 전재성이 펼친, 근대 국제질서의 조직원리(organizing principle)라는 프로그램의 변환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롭다. 국제질서의 조직원리가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교 변수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근본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적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질서의 조직원리는 물질적 이익과 같은 세속적 변수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테러리즘의 부상과 함께 그 기저에 자리 잡은 종교적 변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세계적인 종교의 부활’ 또는 ‘국제정치의 탈세속화(desecularization)’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제정치에서 종교의 부활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제질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성 중심주의나 근대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맞물리면서 종교적

초월성과 영성(靈性)에 기반을 둔, 세계정치의 대안적 프로그램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가치의 프로그램을 짜는 권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치의 프로그래밍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그려내는 것처럼 작위적인 차원에서 시도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권력의 시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도성의 영역을 넘어서 작동하는 가치와 체제의 프로그래밍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전통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논의이지만, 제7장에서 김영민이 역설하는 중화질서와 덕치에 대한 논의가 21세기 권력론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전통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월한 문명의 힘과 통치자의 역량에 의해 자발적인 질서의 형성을 이루어냈다. 이른바 중화질서로 알려진 이러한 질서를 지지하는 사상적 기초의 핵심은 덕치이다. 덕치는 각 주체 간 일정한 형태의 위계를 전제로 하지만 관료적 위계나 형식상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가치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규범이었다. 중화질서 관념은 덕을 체현하는 중심적 존재에 의한 개인 혹은 국가의 교화를 전제로 했다. 단순한 공존을 넘어 특정한 가치를 향한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화질서 하의 덕치는 매우 개입적인 권력관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위(無爲)의 정치와 결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나이가 소프트 파워 개념을 통해서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신비화의 베일 속에 감춰 놓은 21세기 권력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적절한 수준에서 얼마무런 지배 메커니즘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21세기 권력에

대한 탐구는 ‘지배의 권력론’을 넘어서는 ‘저항의 권력론’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Stewart, 2001). “결론을 대신하여_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에서 필자가 논하고 있듯이, 네트워크 권력은 지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의 조건일 수도 있다. 대항 세력의 네트워크 권력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패권 세력이 마련한 프로그램의 규범적 타당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항 세력이 패권 세력을 능가하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배 네트워크와 다른 대안적 채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편향을 지적하거나, 반론에 힘을 싣고자 세를 규합하는 전략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저항의 네트워크 권력이 성공하는 길은 앞서 언급한 행위자와 과정 및 체제의 차원에서 이해된 네트워크 권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5. 이 책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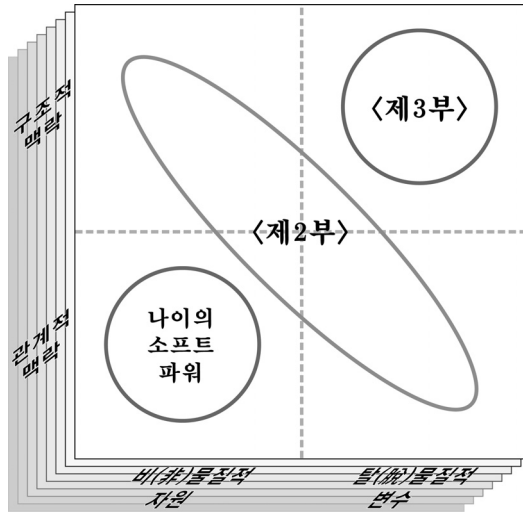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이라는 제목하에 구성된 이 책에는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9편의 글을 실었다. 제1부 “소프트 파워의 사상사적 맥락”에 실은 제1장 “근대 서양정치사상과 소프트 파워: 베버와 그람시”에서 신진욱은 이 책에서 펼치는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에 대한 논의의 사상사적 맥락을 검토했다. 특히 나이가 ‘소프트 파워’라고 부른 권력의 개념화가 20세기 후반 현대 세계정치에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강제의 측면’과 ‘동의를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근대 서양

정치사상의 전통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의 본론에 해당하는 6개의 논문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에 대해서 주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를 펼쳤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이 ‘비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계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면, 제2부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의 원천”에 실은 3개의 논문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의 연속 선상에서 그의 개념화를 넘어서려는 시도들이다. 특히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가 자원으로써 비물질적 변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탈물질적 변수, 특히 정체성의 변수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는 차원에서도 행태주의적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21세기 권력의 속성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제2장 “소프트 파워와 정책 담론: 정합하는 일본의 정체성”에서 손열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정책 담론이나 자기 정체성의 구성과 같은 탈물질적 측면의 권력을 강조했다. 제3장 “소프트 파워와 문화자본, 그리고 정체성”에서 한준은 문화자본같이 구조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비물질적 권력자원의 동학과 옴니보어로 대면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화 문제를 다루었다. 제4장 “소프트 파워와 정체성의 정치: 유럽의 사례”에서 홍태영은 근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국민 정체성이 안과 밖으로 변환을 겪으면서 새로운 권력적 함의를 획득하는 과정을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했다.

제3부 “21세기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에 실은 3개의 논문은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극복하려는 이론적 지평을 펼쳤다. 특히 이들 세 논문은 자원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탈물질적 변수’뿐만

〈그림 1-1〉 이 책의 구성



아니라 행위자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탈)구조적 맥락’의 권력 메커니즘에 특별히 주목했다. 예를 들어, 제5장 “정치권력의 사회학적 분해: 자원권력과 네트워크 권력”에서 장덕진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 권력, 특히 ‘위상적 권력’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소개했다. 제6장 “종교의 부활’과 근대 국제질서의 변환”에서 전재성은 최근 종교라고 하는 탈물질적 변수가 국제정치 영역에 진입하면서 17세기 중반 이래 형성되어온 근대 국제질서의 조직원리가 어떠한 변환의 계기를 마련하는지 검토했다. 제7장 “중화질서와 덕치: 『한궁추』에 담긴 권력론”에서 김영민은 탈구조적인 차원에서 의도성의 영역을 넘어 작동하는 21세기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전통 중화질서의 작동 방식과 덕치의 권력론에서 구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에서 필자는 이 책의 주장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서 네트워크 권력을 제안했다. 포괄적 의미에서 네트워크 권력은 행위자 자체의 속성이나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은 행위자의 행위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역으로 행위자를 제약하는 구조로도 작동하는 권력, 즉 행위자와 구조의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21세기 권력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위자와 과정, 그리고 체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향후의 권력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 참고 문헌

- 김상배. 2004.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55~276쪽.
- _____. 2007.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 _____.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4), 35~61쪽.
- 김상배 외.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김상배 엮음.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 김상배. 2009. “스마트 파워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9.5.6).
- 부르디외, 피에르.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2008.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기획특집. 논형.

- 손열. 2006. 「소프트 파워를 다시 생각한다: 조지프 나이와의 대담」. 『이슈와 대안』.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contents/sub3/life.php?method=info&&search Key=&searchWord=&offset=&slid=1901>(검색일: 2008년 11월 30일)
- 손열 엮음.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 최정운. 2005. 「매력의 세계정치」. 평화포럼21 엮음.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 평화연구소.
- _____. 2007. 「문화와 권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문화와 국제정치』. <<세계정치>>, 28(1), 기획특집. 논형, 45-67쪽.
- 평화포럼21 엮음. 2005.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 전략』. 21세기평화재단 평화연구소.
- 하영선·김삼배 엮음.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Barnet, Michael and Raymond Duvall(eds.). 2005.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 Ulrich, 2005. *Power in the Global Age: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K: Polity.
- Berenskoetter, Felix and M. J. Williams(eds.). 2007.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stells, Manuel. 2004.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Faubion, James(ed.). 2000. *Michel Foucault: Power*. New York: New Press.
- Foucault, Michel. 2007.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algrave.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ssdorf, Wolf. 2007. "Contested Credibility: The Use of Symbolic Power in British Exchange-rate Politics." in Felix Berenskoetter and M. J. Williams(eds.).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41-161.

- Isaac, Jeffrey C. 1987. "Beyond the Three Faces of Power: A Realist Critique." in *Polity*, 20(1), pp. 4~31.
- Jullien, François. 2004. *A Treatise on Efficiency: Between Western and Chinese Thinking*.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eohane, Robert O(ed.). 1986.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mer, Wendy and William Walters(eds.). 2004.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 Lebow, Richard Ned. 2007. "The Power of Persuasion." in Felix Berenskoetter and M. J. Williams(eds.).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20~140.
- Lukes, Steven. 2007. "Power and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on the Bluntness of Soft Power." in Felix Berenskoetter and M. J. Williams(eds.).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83~97.
- Mattern, Janice Bially. 2007. "Why 'Soft Power' isn't so Soft: Representational Force and Attraction in World Politics." in Felix Berenskoetter and M. J. Williams(eds.).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98~119.
- New York Times. Nov. 5, 2008. "Obama Victory Speech," Retrieved Dec 11, 2008, from <http://elections.nytimes.com/2008/results/president/speeches/obama-victory-speech.html#>
- Nye, Joseph S. 1991.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 _____.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_____. 2005.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 in *Wall Street Journal Asia*, Dec 29.

- _____. 2008a. "Smart Power and the War on Terror." in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아시아연구원 · 중앙일보 공동주최 초청강연회 강연원고, 2월 12일. Retrieved Dec 10, 2008, from <http://www.eai.or.kr/korean/upfile/project/pjcontent/Joseph%20Nye%20강연원고.pdf>
- _____. 2008b. *The Powers to Lead*.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Richard A. and Roger M. Kern.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pp. 900~907.
- Stewart, Angus, 2001. *Theories of Power and Domination*. London: SAGE.
- Strange, Susan, 1994.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